

#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22번째

韓 탈춤, 상호 존중의 공동체유산 '예천청단놀이', 6마당 무언극 하회마을, 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한국의 탈춤’이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경상북도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 지난달 11월 30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모로코(수도 라바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한국의 탈춤’을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11월초 무형유산위원회 산하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 됐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등재 결정된 ‘한국의 탈춤’은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성된 총 18개의 탈춤 종목이다.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모순을 춤, 노래, 말, 동작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풍자하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탈춤에는 도내에서 전승·보존돼 온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이」가 포함돼 있어 경북도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경북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인 「예천청단놀이」은 예천 지역에서 전승돼온 국내에선 보기 드문 무언극

(無言劇)으로서, 독특한 형태의 주지관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키로 만든 탈을 사용하며, 광대 북놀이·양반놀이·주지놀이·지연광대놀이·중놀이·무동놀이 등 6마당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승·보존해 온 안동의 하회마을은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유산 분야의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역사마을이 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의미가 더욱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쾌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켜온 지역 주민들과 등재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경북은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국내 세계유산 최다 보유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박형준 부산시장 전국여성대회 우수지자체장상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57회째 맞이한 전국여성대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했고, ‘여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전국 최초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를 개소하여 여성폭력 제로를 위한 부산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 밀양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기관’

밀양시는 환경부로부터 ‘2022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중 지방 환경청 1차 평가로 추천된 최종 9개소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학계·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효과, 사후관리 적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밀양시 단장천 생태하천이 우수사례 하천으로 최종 선정됐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여수시가 지난달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했다.

## 여수시, 스마트관광도시 선포

### IT기술로 지역관광 활성화

문체부 등 9개 부서 합동 공모 스마트관광 5대 요소 적용

여수시가 지난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이순미 여수시관광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과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과 기술을 접목해 IT기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편리한 여행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코리아 토틸 관광 패키지(KTT

P)’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KTT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여수시는 KTT의 핵심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권장 스마트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하여 국비 35억원,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한 다양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정기명 시장은 “세계로 도약하는 여수를 위해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iacocom@

## 전남 귀농어귀촌 평가 ‘고흥군’ 최우수

자체 설명회 개최 등 우수한 성적

전남도는 귀농어귀촌 정책 1년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2022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정책 종합평가’에서 고흥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흥군에 이어 우수상은 보성·강진군, 장려상은 화순·장성·해남군이 차지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이다.

고흥군은 귀농어귀촌 자체 교육·설명회 개최, 다양한 귀농어귀촌 홍보 활동 추진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과 누리집 정보제공 부문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강진군은 귀농어귀촌 교육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은 귀농어귀촌 사업 추진 실적, 귀농어귀촌인 유치 실적, 귀농창업자금 융자 실적 등 8개 항목 12개 평가지표로 각 시·군의 2022년 업무추진 성과를 집계 평가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시상으로 우수 시·군을 격려함으로써 귀농어귀촌인 유치 지원정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 정책을 통해 도시민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우수 시·군 시상식 2일 예정된 ‘2022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에서 열린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2030엑스포 유치 홍보 ‘온힘’

카리브지역 국가장·차관 초청

부산시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2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한 카리브지역 국가장·차관과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등을 부산으로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벌인다.

‘2022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카리브 국가와 지역 기구 대표를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행사로 올해는 11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외교부 주최로 개최됐다.

시는 양일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로 준비된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성권 부산시 경

제부시장 주재 환영오찬과 양자면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 시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교류가 어려웠던 카리브 지역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부산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해수면 상승 문제 극복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프로젝트 등 친환경 가치 공유, 카리브국가연합(ACS) 등 중남미 지역 기구를 통한 부산-카리브 교류 협력 등 경제·금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광양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

신규사업 적정성·효율성 살펴

광양시는 지난 30일 교육환경개선 위원회를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87개소의 2023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주재로 광양교육지원청이 계준 교육장,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광양시의

회 백성호 의원, 김보라 의원을 비롯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받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학교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 사천시 내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선정

사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천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의 20개 관광지를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유일하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등 관광 약자가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해 전 국민이 관광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